

월드와치리스트 2024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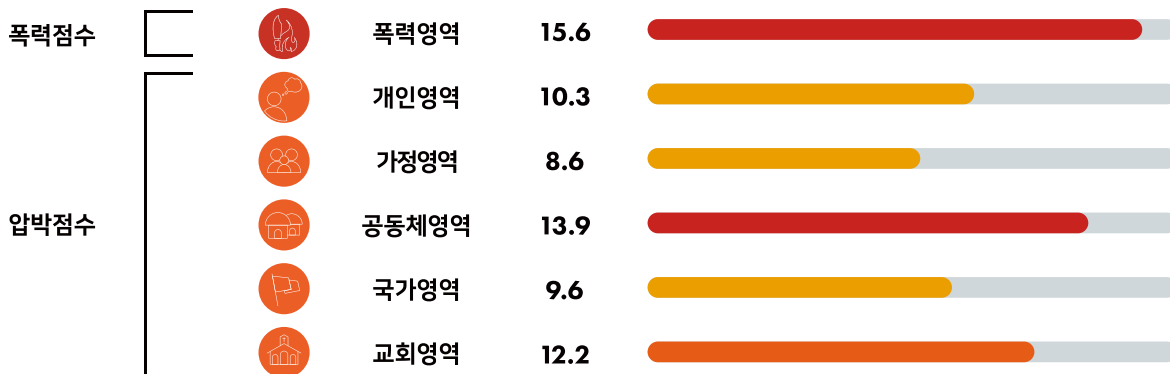
월드와치리스트 2024 보고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기독교 박해지수
28위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 별 총합은 100점이다(6x16.7=100)

중요한 발견

이미 위태로운 가운데 있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AR)은 이웃 나라 수단의 위기로 인해 더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선거 지연으로 인한 수단의 또 한 번의 대규모 분쟁이 발생할 조짐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취약한 상황에 우려스런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수단의 내부 분쟁의 파급으로 인해 CAR는 더욱 불안정해지고 기독교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처할 위험은 증폭될 수 있다. 현재 법과 질서의 붕괴로 무정부 상태와 불처벌이 만연한 수준까지 이르렀고, 기독교인들이 안전하게 신앙 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국가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무장 세력은 교회 건물을 불태우고 약탈하는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다. 이런 폭력에 맞서 용감하게 목소리를 내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안전을 위해 카메룬과 같은 이웃 국가로 떠나야 해야 했다. 통치력과 법치의 부재로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국내 피난민이 되어 임시 수용소로 강제 이주되어 집과 생계 수단을 잃었다. 이는 또한 국지적 형태의 박해가 가능한 온상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CAR 북부 지역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사회적 배척과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며 가족들은 자신의 새로 찾은 신앙을 포기하도록 조직적으로 강요한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ENTRAL AFRICAN REPUBLIC)

국가 정보

지도자 : 포스틴 아르상제 투아데라 대통령

인구 : 5,017,000 명

기독교인 수 : 3,712,000명¹

주요종교 : 기독교

정부형태 : 대통령제공화국



©Alamy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	3,807,000	74.4
이슬람교	711,000	13.9
불가지론	548,000	10.7
바하이교	38,100	0.7

출처²

중앙아프리카공화국 (CAR)은 1960년 독립 이후, 무장 단체와 종교 및 민족 단체, 그리고 목축업자와 농민 사이에 긴장이 겹치면서 폭력의 수렁에 빠졌다. 주로 무슬림 집단인 셀레카 (Seleka)는 2013년에 쿠데타를 일으켜 종교적, 민족적으로 치명적인 분쟁을 일으켰다.

2016년 투아데라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그는 화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19년에 정부와 14개 무장 단체 간에 정치 평화 협정을 체결했지만 (AP 뉴스, 2019년 2월 2일), 2020년 12월 선거를 앞두고 이 협정은 결렬되어 이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정부는 오직 수도 방기 (Bangui)만 통제하고 나머지 지역은 여러 파벌로 나뉘어져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박해에 대한 추적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국가 대통령에 의해 총선에 대한 새 헌법이 제시되면서 국민들의 우려는 높아졌다. 나라 안에 르완다와 바그너 용병 단체가 존재하며 그들의 영향력과 힘이 키우고 있고, 차드 군대도 또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많은 무장 단체들은 다른 단체들과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이며, 어떤 단체는 사리아 국가로 세우기 위해 싸우는 외국인 용병들도 있다. 주로 셀레카 (Seleka) 출신 무슬림 세력과 반 발라카 (anti-Balaka)라고 불리는 자위 단체와 관련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반 발라카는 때로 기독교인들이라고 불리지만, 대부분 아프리카 토속 종교를 따르고 있으며 교회는 이들과 강력하게 선을 긋는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이 불의에 반대하는 말을 하거나, 확장되고 있는 강력 무장 범죄 조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2016년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지켜지고 있다. 무슬림과 기독교인 사이의 관계는 합리적이지만 일부 긴장은 있다.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인권이 침해 받고, 무슬림이 지배적인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은 셀레카 출신의 단체들에 의해 차별과 공격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다. 반 발라카 (anti-Balaka) 반군

¹ 정보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² 정보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단체도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활동을 공격한다. 여성들과 소녀들은 경제적으로 가족을 의존하므로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그들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2023년,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은 이미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수단과 남 수단의 대규모 분쟁이 다시 발생할 조짐과 위협으로 인해 또 다른 혼잡이 우려된다. 이것으로 CAR는 분쟁 중인 국가들에 휘말려 자국의 불안정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국제 구호 단체들은 여러 분야의 불안정과 인권 침해를 다루기 위해 여러 곳에 포진하고 있다.

가장 큰 종교 집단은 로마 가톨릭이다.



지역 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은 무슬림이 지배적이고 셀레카 분파 단체가 활동하는 북부와 동부 지역에서 가장 심하다. 수단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동부 지역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근원

이슬람의 탄압

특히 셀레카 무장 단체의 분파에 의해 자행되는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외에도, 이슬람의 탄압은 주로 무슬림이 많은 지역의 사회 전반에서 박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조직적 부패와 범죄

이런 박해의 동력은 특히 안티 발라카 무장 세력이 교회와 기독교인을 공격하는 것에 있다. 안티 발라카는 자경단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범죄 조직으로 변했다. 특히 수도 방기 (Bangui)에서 그들은 종종 기독교인들과 교회 지도자들, 특히 자신들의 이상을 따르지 않거나 그들의 폭력

누가 영향을 받았는가?

국외 거주자 기독교 공동체들

이 범주는 기독교 박해 지수의 점수와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로마 가톨릭은 국내 가장 큰 종파로 넓은 교회 연결 망, 병원과 학교를 가지고 있다. 셀레카 쿠데타 기간과 이후에 많은 교회가 약탈당했다. 가톨릭 교회는 평화와 화해를 위한 강력한 목소리를 높였으며, 무슬림과 기독교인 모두 공격을 피해 도망하는 민간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도 했다.

기독교 개종자들

무슬림 출신의 개종자들은 개종 사실이 알려지게 될 경우 가족에게서 자신의 신앙을 버리라는 반대와 압박을 받는다. 특히 북부의 무슬림이 지배하는 지역에서는 이슬람 선동가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 공개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복음주의와 오순절 교단은 셀레카 출신 (ex-Seleka) 무장 세력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기독교 회중에 합류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적 활동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슬림이나 기독교인 모두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들이 기독교인들을 보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수년에 걸쳐 명백하게 증명되었다.

종족 억압과 혼합된 민족 종교적 적대감

이 박해의 중심에 두 가지 차원이 작용한다. 1) 정령 신앙 (종교적/문화적) 2) 부족간의 분쟁. CAR에서는 일반적으로 민족적 동기와 종교적 동기가 함께 작용하고 일부 소수 민족 집단은 표적이 된다. 예를 들어, 바아족 (일명 피그미족)은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반 발라카 단체는 때로 기독교인을 강제로 끌어들이기도 한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수년 간의 폭력과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기독교인 여성들과 소녀들은 강간, 인신매매, 납치, 강제 결혼에 특히 취약해졌다. 종교적 박해의 형태로 성적 학대는 수치심, 트라우마, 임신으로 이어진다. 성폭력 비율이 높은 고 위험 지역의 부모들은 여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못한다. 여성들의 가족에 대한 의존도는 여성들이 가족에게 받는 박해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어려움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무슬림이 지배적인 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이슬람 복장 규정을 강제로 지키게 하며, 기독교 개종자들은 가택 연금과 무슬림 노인 남성과 강제 결혼을 당하기도 한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사회 연결망 접근 거부
- 교육을 통한 차별/괴롭힘
- 벌금을 통한 경제적 괴롭힘
- 종교 복장 규정 시행
- 강제 결혼
- 표적 유혹
- 인신매매
- 폭력 - 신체적 / 심리적 / 성적 / 언어적

남성

남성은 신앙 때문에 살해당하거나 급진 무장 단체에 구금될 수 있다. 목사들은 특히 표적이 되어 거짓 누명을 쓰거나 교회 예배 중에 공격을 받기도 한다. 이슬람 지도자들이 모든 시장을 점령하고, 매매를 통제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기독교 사업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남성은 직업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때로 기독교인의 상점은 약탈당하고 빈곤에 빠지기도 한다. 기독교인들은 반군 무장 단체에 강제로 끌려가 고문과 폭행의 표적이 된다. 납치, 살해, 협박, 그리고 남성들에게 빈곤함을 전술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기독교인 가정에게 크게 영향을 준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납치
- 상속 또는 소유 박탈
- 정부에 의한 투옥

- 군대 / 무장 민병대 징집으로 양심에 반하는 징집
- 폭력 - 살해 / 신체적 / 심리적

월드와치리스트 5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 순위	100점 만점에서 반올림한 박해점수
2024	28	70
2023	24	70
2022	31	68
2021	35	66
2020	25	68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의 박해 점수는 2023년과 동일하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 여러 파벌 간의 분쟁으로 인해 많은 교회가 피해를 입었다.
- "종교 단체는 최소 1,000명의 회원이 있고 지도자가 적절한 종교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법에 따라 1,000명 미만의 기독교인 단체는 인가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표적 폭력의 결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집을 떠나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안전을 찾아가야 한다.

월드와치리포트 연도	구금을 당한 기독교인들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당한 기독교인	살해당한 기독교인	공격 받거나 폐쇄된 교회나 기독교 건물
2024	1000*	1000*	23	14
2023	1000*	100*	61	11

이 표는 보고 기간 동안 발생한 신앙 관련 폭력에서 몇 가지 범주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Full Country Dossier의 폭력 영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징적인 어림 수가 주어졌고 (10*, 100*, 또는 1000*) 이 결과들은 실제로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

개인 영역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개종 사실이 알려지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심각한 침해와 재정 지원 중단을 겪는다. 셀레카 분파인 무슬림이 지배하는 북부 지역에서는 기독교 자료를 소유하는 것으로 목숨의 위협을 당한다. 전직 셀레카 무장 세력은 집에 들어갈 때 누군가 성경을 읽는 것을 목격하면 즉시 살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족 영역

배우자가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는 그의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다른 배우자에게 이혼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종자는 거의 자동적으로 가족 상속권을 잃게 된다. 반군 단체가 통제하는 지역에서 부모가 살해된 경우나 강제로 피난을 떠나고 자녀들이 남겨질 경우에, 그 남겨진 아이들은 공격자들의 손에 넘어 가고, 일부는 잔인하게 살해당하기도 한다.

공동체 영역

정부는 여러 지역에서 이미 통제권의 효력을 상실하였다. 무슬림이 지배적인 지역, 특히 샤리아 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차별을 겪는다. 일부 반군 단체와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에 의해 받는 감시는 흔한 일이다. 이러한 분쟁 중에서 기독교인들, 특히 어린 소녀들은 공격과 납치로 고통을 당한다. 무슬림

공동체는 보통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과 함께 의료 시설과 같은 사회 자원을 함께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특히 북부의 외딴 지역에서 더욱 일어난다.

국가 영역

셀레카 무장 세력이 지배하는 지역에는 무슬림이 모든 교통 시설을 통제하고 있어 기독교인들이 이동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폭력이 발생하면 목회자들은 특히 더 취약해진다. 반군 단체가 휘두르는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은 차별을 당하고 때로는 공격을 받아 집과 나라를 탈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교회 영역

정부는 공식적으로 감시를 하지 않으나, 각종 반군 단체들이 민간인들을 감시하여 그들이 다른 단체와 연결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한다. 교회 예배가 중단되고 불에 타는 등 많은 공격이 보고되고 있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은 다음 국제 조약들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하였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방지 협약(CAT)
4. 여성차별 철폐 협약(CEDAW)
5. 유엔 아동권리 협약(CRC)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은 다음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인 의무를 다 하지 않고있다.

- 무슬림이 지배적인 지역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신앙을 버리도록 가족과 지역 사회로부터 압박을 경험한다 (ICCPR 제18조)
- 기독교인들과 그들의 활동은 반군 단체들에 의해 감시를 당한다 (ICCPR 제17조)
-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논하거나 전도에 참여하는 경우, 괴롭힘과 폭력을 당한다 (ICCPR 제18조, 제19조)
- 기독교 여성 개종자들은 납치를 당하고 무슬림 남성과 강제 결혼을 당할 위험을 가진다 (ICCPR 제23조, CEDAW제16조, ICESCR 제10조)

이외 소수 종교집단의 상황

미국 국무부에서 (IRFR 2022) 발표한 바는: "나라의 중부와 북서부 지역에서 정부군과 바그너 단체가 싸우는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무슬림 민간인들이 표적이 되어 일부는 무차별적으로 살해되었다고 국제 및 현지 감시단이 보고하였다."



오픈도어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역

오픈도어는 지역 협력자들과 교회들을 통하여 수년 동안 CAR사역에 참여하여왔다. 2013년부터는 2013년 3월에 일어난 셀레카 무장 세력으로 일어난 쿠데타로 인해 위기에 처한 교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역하였다. CAR 비전은 성숙하고 자율적이며 상흔과 핍박에 대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지원하는 것이다.

우리의 사역은 다음을 포함한다:

- 핍박 대비
- 경제적 안정
- 트라우마 치유

